

# 강기정 시장, 기회발전특구 3대 성공전략 제시 김영록 지사 “빈집 정비 국가재정 지원 꼭 필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6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각각 '기회발전특구 3대 성공 전략'과 '빈집 정비 국가재정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적 과제와 지방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는 ▲실무협의회의 논의 경과 보고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지원 방안(지방시대위원회) 보고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계획(중소벤처기업부) 보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 및 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지방 4대협의체) 보고 ▲종합토론 ▲자치입법 자율성을 확대하는 법체계 개선 방안(법제처 등) 보고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방안(행정안전부)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강기정 시장은 "기회발전특구가 우수 기업의 지역 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인재 지원, 세제 거리등급제, 전력 차등요금제 등 3대 지원 방안이 담

긴 기회발전특구 특별법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인재 지원 효과는 광주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광주가 최근 에이직랜드 등 세계적인 반도체 팹리스 기업 유치에 성공을 거둔 것도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을 위한 정책 덕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확대와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姜 “특별법에 인재·거리등급제·전력차등요금제 담아야”  
金, 전남특별자치도·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 확대 건의

관련해 '세제 거리등급제' 도입을 강조  
했다. 세제 거리등급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더 멀리 이전할수  
록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강 시장은 전력 소비가 많은 첨

단산업 기업의 최적지는 친환경에너지가 풍부한 호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전력차등요금제' 적극 검토를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강진의 월 1만원 임대주택, 장흥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사업 등 빈집과 폐교 정비 활용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김 지사는 "매년 빈집 2천여동을 정

비하고 있지만 빠른 고령화에 따른 소유 사망과 소유주의 반대 등으로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빈집 증가 이유를 도시(국토교통부)-농어촌(농림축산식품부) 관리체계 이원화, 빈집 정비 재정 부담 등으로 진단하며 빠른 정비를 위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빈집정비 특별법과 국가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실제 빈집 정비의 경우 한 동당 1천만원이 소요돼 전남지역 빈집 정비에만 2천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지방소멸 위기의 근원적 해결 방법은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지역에 필요한 권한을 확보해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만들기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다.

또한 김 지사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를 연 1조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하고 저출생 극복 등을 위한 출생육아수당 등 현금성 지원도 허용하도록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6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김재정·박성강 기자

## 전남대 교수 107명 '尹탄핵' 시국선언

권력 사유화·국정농단 조사 촉구

전남대학교 교수 107명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전남대 교수 일동은 "윤석열 검찰독재에 의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

주주의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하면서 국민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국정농단의 실체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녹취 파일 공개로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일부 정치검찰

은 국정농단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수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시행해 실제적 진실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더 이상 참담한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이 자리에서 섰다"고 강조했다.

/김대이 기자

## 전남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홍보 총력전

15일까지 권역별 현장캠페인...동절기 9개국 18개 노선 홍보

전남도는 오는 15일까지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이용률 제고를 위해 무안군, 항공사 등과 합동으로 철도역, 버스 터미널, 대학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2024년 무안국제공항 동절기 운항 노선 홍보 캠페인'에 나선다.

무안국제공항 동절기 운항 노선은 ▲일본 오사카·나리타·나가사키 ▲대만 타이베이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라오스 비엔티안·루앙프라방 ▲필리핀 마닐라 ▲중국 항저우·장가계·여강 ▲캄보디아 시엠립 ▲베트남 나트랑·다낭·달랏·하노이·푸꾸옥 총 9개국 18개 노선이다. 지난해 동절기보다 3개국 6개 노선이 늘었다.

이번 캠페인에선 2007년 무안국제공항 개항 이후 처음으로 매일 운항되는

일본 나리타, 오사카, 대만 타이베이 정기관 국제노선과 동절기부터 새롭게 운항하는 태국, 말레이시아 등 다변화된 노선을 중점 홍보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15일까지 서부권, 동부권, 광주권 등 권역별로 현장 캠페인을 진행한 다. 6일 무안군과 함께 나주역과 목포대 학교 등에서 '두근두근 무안국제공항' 홍보물을 배포하고 운항스케줄, 이용가이드, 동절기 운항 노선 등을 설명했다.

국내 대표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가 이번 동절기 노선부터 매일 운항하고 공급 좌석 전체를 개별 공급하는 내 용도 홍보했다. 그동안 80% 이상 여행사를 통해 좌석을 공급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좌석 전체를 개별 공급하고 매일 정기편을 운항하는 것은 무안국제

공항 개항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전남도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노선의 성공적 운항과 항공기 운항 방식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운항 노선 다양화를 위해 제주항공이 취항하는 일본 나가사키, 대만 타이베이, 태국 방콕,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노선 등에 대한 홍보와 이용률 제고 지원에도 나선다.

무안국제공항 배후 시장 확대를 위해 전북도청, 전북 14개 시·군, 광주시청, 광주 5개 구청에 '무안국제공항 동절기 운항 노선 홍보 및 활성화 협조요청 공문'과 홍보전단을 발송하고 협력도 요청했다.

무안국제공항 10월말 기준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90% 상승했다. 전남도가 올해 목표한 이용객 50만명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김재정 기자

## 광주 '대·자·보 도시' 프로젝트 첫발

전담팀 첫 회의...주요 전략 논의

광주시는 6일 "대·자·보 도시 광주"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전남 시청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고광완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련 실·국장, 자치구와 관계기

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대·자·보 도시 광주'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주요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정석 정책자문관(서울시립대 교수)은 이날 마련된 특강에서 시민 중심의 지속할 수 있는 교통체계 구축과 보행자 중심 의 도시로 나아가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광주전략추진단은 대·자·보 도

시 기본구상과 시민 공감 사업을 소개하며 대·자·보 도시 정책의 방향 설정과 시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대·자·보 교통체계 전환은 시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실증공간 조성 ▲대·자·보 도시 공문화 ▲시민 스스로 기획·실천 ▲사람 중심의 교통 흐름 등 실증·소통·참여에 연결을 더한 '시민 공감 정책 실행 계획 3+1'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강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알고당사다

### 개인형이동장치

- 01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범칙금 10만원**
- 02 승차정원 초과**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 1명  
전기자전거: 2명  
**범칙금 4만원**
- 03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 04 음주운전**  
운전면허 정지·취소  
**범칙금 10만원**
- 05 어린이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과태료 10만원**

한국도로교통공단 KOREA ROAD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부